

“詩 쓰기란 바라보는 행위의 산물”

장흥 출신 이재연 시인 시집
‘화요일이었고 비는...’ 발간
‘시간’ 모티브로 한 작품 수록



“제 시가 누군가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졸론 시를 쓰는 동안은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었어요. 물론 시집을 내고 난 후 긍정적인 반응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었죠. 시를 쓰면서 바랐던 것과 연관된 화답 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걸음이라도 독자들에게 더 다가가기로 소망해 봅니다.”

장흥 출신 이재연 시인은 2012년 제1회 오장환 신인문학상을 수상한 저력이 있는 문인이다. 시집으로 ‘쓸쓸함이 아직도 신비로웠다’를 펴낸 바 있으며, 목록화 자신만의 시를 쓰는 시인이다. 지난 2017년 ‘세계의 불가능성’을 주제로 하는 시집을 펴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재연 시인이 최근 시집 ‘화요일이었고 비는 오지 않았다’ (파란)를 펴냈다.

첫 시집을 펴낸 지 6년 만에 발간한 작품집은 그동안의 시간의 궤적을 가늠할 수 있는 작품들을 담고 있다. 근황을 묻는 말에 “빠르게 흐르는 시간을 좀 천천히 살았던 것 같다”는 답이 돌아왔다.

시집을 펴낼 때가 되었는데 소식을 전해지지 않는 것은 대체로 두 가지 경우다.

일신의 변화가 있거나, 창작에서 한 발 떨어져 창작을 위한 ‘발효’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

“몇 년 전 별일 아닌 것으로 병원을 조금 들락거렸는데, 그러다 보니 일의 선수가 명백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읽는 것도 쓰는 것도 천천히 했습니다. 동료 몇 분과 함께 강 따라 걷기를 시작하기도 했는데 체력을 위해서도 그 이상으로 좋았던 것 같



이재연 시인

아요. 무량한 시간을 따라 걷는 것 같기도 했고 시원과 기원을 따라 걷는 것 같기도 했으니까요.”

시인은 그동안 걸으면서 또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바라보는 일’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 쓰는 일에 앞서 선행되는 것은 먼저 바라보는 일일 것이다. 그는 “세계 속의 대상을 바라보기도 하고 내 속의 세계를 바라보기도 했다”며 “그 바라보는 일을 글로 옮기는 것이 내게는 시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무릇 창작은 대상에 대한 천착에서 비롯된다. 시인에게 과정은 바라봄일 것이다. “어떤 기준에 의하면 두 번째 시집이 좀 낫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인은 그 낫고 빠른 무딘 편이라고 한다. 그것은 시집을 묶어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시에 더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늘 더 많이 기울어져 있었다”는 말에서 그의 지향점이 가늠된다.

“이번 시집은 화자의 목소리가 일상성과 구체적 현실에 가 닿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바라보고 느끼는 ‘세계

가 나에게 그렇게 전환을 요구하는 것 같고 나 자신에게도 전환이 필요했으니까요. 그 지점에서 일상성과 구체적 현실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린이 잎사귀를 천천히 따 먹는 저녁/ 수줍음이 많은 작은 꽃들과 함께 구르는 푸른 자갈들// 데라는 칠십 세에 아브라함과 나홀로 하란을 낳고/ 생의 한가운데에 있는 한 그루의 나무는 나무를 낳고 낳아/ 운율을 이루는 평원에 가랑비 오다 굽은 빗방울 떨어진다// (중략)// 유모차 안에 탄 아이는 천천히 다가오며 불러 주는/ 긴 들녘의 노래에 실컷 잠이 들고 시냇 평지의 구름을 흘리며/ 흰 새들이 일제히 땅에 내려앉는다” (‘기린이 잎사귀를 먹는 저녁’ 중)

위 시 ‘기린이 잎사귀를 먹는 저녁’은 시인이 사유하는 시간이 복합적으로 투영돼 있다. 구약의 시대와 오늘의 시대, 그리고 특정할 수 없는 시간 등이 교차되면서 작품을 완성한다. 시간 속에서 탄생하는 무수히 많은 서사들, 상상들, 이미지들은 신비로우면서도 풍요롭다.

남승원 문학평론가는 “시간에 대한 감각으로 이 작품을 말해 보자면 인간의 시간과 신화적 시간이 교차하고 얽혀 들어 서로를 지탱하고 있는 구조라 할 수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이재연 특유의 시간 감각으로 만들어진 시적 구조이다. 마치 정글 속에 버려진 사원의 돌담이 자기를 무너뜨린 나무에 다시 의지한 채로 오랜 세월을 버티고 있는 모습”이라고 평한다.

앞으로 시인은 책을 읽으면서 좀 더 시간에 대해, 시에 대해 사유할 예정이다. “책장을 보니 구입해 놓고 보지 않은 책들이 의외로 많았다”는 말에서 다음의 행보가 가늠이 된다. 프로젝트 전집을 구해놓고 한편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었는데 더 많이 읽어주겠다며 웃는다.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운동입니다. 읽고, 쓰고, 걷고, 그리고 잘 노는 것도 계획의 일부죠. 그리고 무엇보다 청용의 해인 감진년에는 모든 분들이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한 한 해를 보냈으면 합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자본주의사회 ‘욕망’이라는 덫

김만성 작가, 첫 소설집 ‘보스를 아십니까’ 펴내

고등학교 졸업반부터 신춘문예에 투고할 만큼 오랫동안 소설을 꾸미왔던 이가 오십이 훌쩍 넘은 나이에 그 꿈을 이뤘다. 그리고 마침내 첫 소설집을 펴냈다.

그동안 문학청년은 대학졸업과 동시에 금융회사에 입사에 생활을 쫓으며 살았다. 그는 “빠르게 돌아가는 자본주의 침범적 직장에서 소설은 가끔 생각나서 첫사랑 같은 존재였다”며 “그립고 아쉬웠으나 결여 두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장생활 12년 차에 심하게 앓았다. 말하자면 번아웃증후군에 감염되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소설을 구성하고 있었다”며 “그때부터 가슴이 조금씩 다시 뛰었다”고 덧붙였다.

40여 년의 세월 동안 그의 내면을 지퍼했던 문학이라는, 소설이라는 ‘열장’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

김만성 작가가 최근 ‘보스를 아십니까’ (보민출판사)를 펴냈다.

‘보스’, ‘서킷브레이크’ 등 7편의 단편이 실린 작품은 공교롭게도 1인칭 시점을 활용하고 있다. 대개의 경우 1인칭은 소설의 주인공과 작가를 겹쳐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물론 소설이 창작의 산물임을 가정한다면 동일화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주인공에는 작가의 페르소나적인 부분이 투영돼 있을 수 있다.

문순태 소설가는 “주인공을 통해 작가 자신의 욕망과 강한 삶의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 보이



고 싶기 때문일 수 있다”며 “소설의 주제를 통해 자아확대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설은 대체로 ‘자본주의 탐욕과 공포’를 모티브로 한 가욕망이라는 ‘덫’에

침윤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제작 ‘보스를 아십니까’는 개인의 윤리, 자본주의 윤리의 대립 지점을 초점화하고 있다. 51년째 구두방을 운영하고 있는 주인공은 신문에 이색 후계자를 모집한다. ‘50년 구두뒀이, 외길로 번 40억 원 어떻게 쓸 것인지를 면접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신문에 광고가 나가고 난 후 면접 희망자가 몰려들고 사람들은 자기를 뽑아달라고 어필한다. 그 사이 주인공은 구두뒀이에서 사장님, 회장님으로 승격돼 있다.

문신평론가(우석대 교수)는 “김만성의 소설은 자본주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욕망을 밀도 있게 다루면서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의 내면을 통해 인간의 윤리가 한 줌의 재에 불과한 사실을 압도적으로 각인시킨다”고 평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엑소’ 백현, 광주 팬들과 달콤한 만남

27일 DJ센터 ‘과자파티’ 팬미팅...독립 후 첫 전국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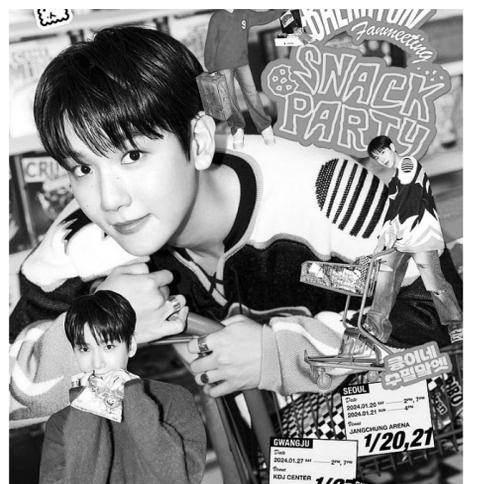
3세대 아이돌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그룹 ‘엑소(EXO)’ 멤버 겸 솔로 아티스트 백현이 팬미팅 행사 ‘과자파티’로 광주시민들을 만난다. 오는 27일 오후 2시, 7시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1~2홀).

이번 팬미팅은 지난 8일 백현이 엑소 멤버 첸, 시우민과 함께 독립 레이블 INB100을 설립한 뒤 처음으로 진행하는 전국투어 행사다.

이에 앞서 12일 온라인 예매사이트 멜론티켓에서는 광주·부산 팬미팅 티켓 예매 대기열이 50만 명을 넘기도 했다.

행사장에 설치된 ‘SNACK ZONE’에서 미리 백현에게 물어보고 싶은 사연을 수합한 뒤, 이에 대해 답하는 ‘애프터는 T’ 코너가 마련될 예정이다. 또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는 ‘과자파티 아니고 과제파티’와 ‘숨은 백현 찾기’, Q&A를 진행하는 ‘스낵톡’ 코너도 있다.

한편 행사는 2월 3일 부산KBS홀 등에서도 열



‘엑소(EXO)’ 멤버 백현.

리며, 마지막 공연은 전국 CGV 11개 극장을 통해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이금이 동화작가, 안데르센상 최종후보

아동문학 노벨상 한국 첫 글부문...최종후보 6명

동화작가 이금이(사진) 씨가 세계적인 아동문학상인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 최종후보에 올랐다.

22일 아동문학계에 따르면 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IBBY)가 최근 발표된 올해의 안데르센상 글 부문 최종후보(숏리스트) 6명에 이금이(62) 작가가 포함됐다.

올해 안데르센상 글 부문에는 이 작가와 함께 마리나 콜로산티(브라질), 하인츠 야니쉬(오스트리아), 바르트 뉘에르트(벨기에), 티모 파벨라(핀

란드), 에드바르트 반데 벤델(네덜란드)이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안데르센상은 덴마크의 전설적인 동화작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1805-1875)을 기려 1956년 제정된 세계적인 권위의 아동문학상으로, 2년마다 아동문학 발전에 공헌한 글·그림 작가를 한 명씩 선정해 시상한다.

안데르센상의 그림 부문에서는 이수지 작가가 2022년 수상한 바 있다. 이상의 글 부문 최종후보에 한국 작가가 오른 것은 이금이 작가가 처음이



2020년에도 안데르센상 한국 후보로 지명된 적이 있다.

다. 이금이는 1984년 단편동화 ‘영구랑 흑구랑’으로 데뷔했다. 스테디셀러 ‘너도 하늘말나리아’와 후속작 ‘소희의방’, ‘숨은 길 찾기’ 등 3부작을 비롯해 ‘유진과 유진’, 등을 펴냈다. /연합뉴스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겠습니다.

보험사기 ZERO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